

# 公務國外研修結果報告書

##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4. 8. 8 ~ 8. 16 (8박9일)
- 방 문 국 :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연 수 단 : 16명(의원12명, 공무원4명)

龜尾市議會

##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북유럽)



북유럽 연수단 일행

☞ 이 연수결과 보고서는 2004년 북유럽 연수단 전체의원이  
공동 작성 하였습니다.

# 目 次

## I. 연수개요————— 1

1. 방 문 국—————1

2. 연수목적—————1

3. 연수기간—————1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1

5. 연수일정 및 주요 내용—————2

##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3

1. 러시아 (Russia)—————3

2. 핀란드 (Finland)—————22

3. 스웨 덴 (Sweden)—————32

4. 노르웨이 (Norway)—————47

※ 북유럽 사례 및 우리시 접목 방안—————59

## III. 연수성과—————61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2. 연수목적

- 본격적인 지방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북유럽 선진국의 도시·환경 행정 및 사회복지제도 등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문화·복지 등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04. 8. 8 ~ 8. 16 (8박9일)

###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

| 연번 | 소속위원회   | 성명     | 연번 | 소속위원회   | 성명     |
|----|---------|--------|----|---------|--------|
| 1  | 구미시의회   | 김택호부의장 | 9  | 산업건설위원회 | 문영덕의원  |
| 2  | 의회운영위원회 | 임성수위원장 | 10 | "       | 정재화의의원 |
| 3  | 기획행정위원회 | 이상진의의원 | 11 | "       | 김익수의의원 |
| 4  | "       | 윤종석의원  | 12 | "       | 정성기의의원 |
| 5  | "       | 이정임의원  | 13 | 전문위원    | 이춘배    |
| 6  | "       | 박배원의의원 | 14 | 행정7급    | 이진하    |
| 7  | 산업건설위원회 | 변우정위원장 | 15 | 기능직     | 김영조    |
| 8  | "       | 이강덕의원  | 16 | "       | 한정아    |

## 5.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 일 자                            | 출 발 지    | 도 착 지       | 방 문 지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제1일<br>8. 8(일)                 | 인 천      | 모스크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출발</li> <li>· 모스크바도착후 숙박</li> </ul>                                |     |
| 제2일<br>8. 9(월)                 | 모스크바     | 모스크바        | 사회복지시설<br>크레믈린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어린이집 운영실태</li> <li>·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실태</li> </ul>                         |     |
| 제3, 4일<br>8. 10(화)<br>8. 11(수)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궁전광장<br>미의궁전박물관<br>상트페테르부르크<br>근교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편의시설 확보상태</li> <li>·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실태</li> <li>· 도시개발 실태 견학</li> </ul> |     |
| 제5일<br>8. 12(목)                | 상트페테르부르크 | 헬싱키         | 헬싱키의회, 시청<br>탐미아우카교회<br>사벨리우스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및 행정운영실태</li> <li>· 문화유적지 관리실태</li> <li>· 도시공원 조성실태</li> </ul>      |     |
| 제6, 7일<br>8. 13(금)<br>8. 14(토) | 헬싱키      | 스톡홀름        | 스톡홀름시청<br>스톡홀름시가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행정운영 사례</li> <li>· 시가지개발 현황</li> </ul>                              |     |
| 제8일<br>8. 15(일)                | 스톡홀름     | 오슬로<br>모스크바 | 오슬로시청<br>조각공원<br>바이킹박물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정, 의회운영현황</li> <li>· 도시공원조성 현황</li> <li>· 박물관 관리실태</li> </ul>         |     |
| 제9일<br>8. 16(월)                | 모스크바     | 인 천         | 기내숙박                                |                                                                                                                  |     |

##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 1. 러시아(Russia)

#### 기 본 현 황



- 수 도 : 모스크바
- 인 구 : 145,164천명
- 면 적 : 17,075,400km<sup>2</sup>
- 민 족 : 동슬라브족
- 언 어 : 러시아어
- 종 교 : 러시아정교
- 화 폐 : 루블(1\$=28 ~ 29루블)
- 1인당 GNP : 1,750\$

■ 체류기간 : 2004. 8. 8 ~ 8. 12

■ 방문도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1) 역 사

-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세운 유라시아북부를 지배하던 옛 제국으로서 피터 대제의 절대주의적 관료국가가 설립되었고, 13세기 모스크바 공국이 성립하면서 통일국가로 성장해오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거쳐 1922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설립되어 사회주의 체제가 명확히 정립되어 이어오다

1991년 극우강경파의 쿠데타에 의해 고르바초프가 실직하고,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엘친이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공화국들의 자주독립요구가 커져서 결국 소련은 해체되어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국가 연합형태인 독립국가연합이 결성된 국가이다.

-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이래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거주지등록 및 주요시설의 출입통제등이 심하며,

산유국으로서 사회주의국가 시절부터 지역난방 등은 중앙집중식으로 공급 함으로써 에너지는 풍부하나 국민소득이 낮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우리나라와는 1990년 대사급 수교를 하였다.

## 2) 지리 · 기후

- 러시아는 북쪽으로 북해, 동쪽으로 태평양에 면하고, 남쪽으로 북한 · 중국 · 몽골 · 카자흐스탄 · 아제르바이잔 · 그루지야,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 벨로루시 · 라트비아 · 폴란드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노르웨이 등에 접한 극동에서 중동부 유럽국가이다.

동서길이 약 9,000 km, 남북 최대길이 약 4,000 km, 최소길이 약 2,500 km에 이르며, 총 17,075,400km<sup>2</sup>의 면적으로 세계 최대의 영토대국으로서 2위인 캐나다에 비하여 2.5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 러시아의 기후는 매우 한랭하고 긴 겨울과, 짧고 서늘한 여름을 가지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이다. 남쪽의 중앙아시아에 발달한 산악지대가 습윤한 아열대성 기단을, 또 동쪽의 험준한 습곡산지가 태평양의 해양성 기단을 차단하며 서쪽의 대서양 기단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는 급속히 추워지는 반면 여름에는 급속히 기온이 상승한다.

## 3) 교통 · 도로

-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 혹독한 기후, 자원의 편재 등으로 원활한 수송체계의 마련은 경제발전의 관건이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하고 중도에 파손 ·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주요 소비재 공급 부족현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의 원인은 생산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수송체계의 비효율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철도는 러시아의 수송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철도의 화물운송 부담률은 전체 화물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여객 수송 부담률은 이에 다소 못미친다. 경제침체로 화물발생량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수송관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철도의 화물수송 부담률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거리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 러시아의 철도 총길이는 8만 7000 km이며, 철도밀도는 1 km당 4.5 km이다. 철도노선의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여, 유럽러시아의 철도밀도는 매우 높은 반면,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바이칼~아무르 철도(BAM)의 간선 외에 소수의 지선이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자원개발과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철도건설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과소(過疏)상태이다.  
현재 노선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어 운송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컨테이너 수송률은 전체 화물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철도는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및 발트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그리고 그루지야 등과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 도로 교통 역시 아직은 낙후되어 있다. 고속도로망은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포장률이 낮은 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도로는 거의 포장 안 되어 있다. 도로의 화물운송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100 km 이내의 단거리 수송이 대부분이다. 최근 자동차 생산대수가 크게 늘면서 도로의 여객수송 부담률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시설 및 서비스 업체 부족은 도로운송체계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러시아의 항공교통은 자동차교통보다 훨씬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러시아에는 민간항공사 141개사, 항공기 8,200여 대가 취항하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2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의 항공기는 전세계 87개국에 취항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외국항공사가 러시아에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4) 사회 · 교육

- 러시아인은 동슬라브족으로 기질은 거칠고 사나우며,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난폭운전(시속 100~200km)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주 5일제 40시간이며 월 평균 임금은 300\$(한화 36만원) 정도이고, 현재 교수임금은 200~300\$이며 국립병원의사는 200\$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 모스크바에는 실업자가 많으며, 결혼연령은 보통 남자24세 여자22세로 주로 구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은 전승기념관, 국립묘지 방문등 모스크바 시내를 한바퀴 돈다.
- 러시아 대부분의 여성이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직종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버스기사중 여성 종사자가 많았다.)
- 주거형태는 대부분 베란다가 없는 APT에서 거주하며, 여가생활은 주로 공원에서 산책과 독서를 즐기고, 주말이면 교외에 있는 다차 라는 개인별장에서 생활한다
- 1991년 개방이후 토지는 국유지에서 사유화 되었으며, 신흥귀족세력인 마피아가 토지 및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학력 엘리트로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회에도 진출하는등 마피아의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러시아의 교육과정은 보통 유치원을 거쳐 우리나라 초·중·고를 합친 교육기관인 슈콜라에서 11년동안 수학하며, 이를 마친후 대학에 가게 된다. 대학은 종합대학과 전문학교로 나뉘며, 보통 4~5년 과정으로 이를 마친후 대학원으로 진학할수 있다.  
유명한 대학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를 10여명이나 배출한 모스크바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바우만공과대학,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등이 있다.

- 모든 학교는 숫자로 표시하고, 선생님 호칭대신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특히 석유가스대학 송유관학과, 차이코프스키대학, 볼세이발레대학 등 특성화대학이 많아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이 외에도 러시아 내에는 많은 연구소들이 학계에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 5) 문화 · 예술

- 문 학 :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 톨스토이의 “전쟁과평화” 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파스체르나크와 솔제니친, 부닌등의 노벨상 수상작가들을 배출 하였다.
  - 음 악 : 차이코프스키는 발레곡 “백조의호수” 와 교향곡 제6번인 “비창” 을 남겼으며 특히 쇼스타코비치는 실내악, 오페라, 발레곡, 교향곡 등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 “15번교향곡” 은 유명하다.
  - 무 용 : 마야 플리세츠카야, 루돌프 누레예프등 탁월한 무용가와 볼세이 발레단, 스커스등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 스포츠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역사적인 축구팀으로는 스파르타크와 디나모가 있으며, 힘과 스피드를 이용한 적극적인 공격이 러시아 축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중적으로 널리 즐기고 있는 아이스하키, 테니스, 수영, 농구, 스키등이 인기가 있다. 그러나 의외로 야구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종목들을 모르는 러시아인들도 많다.
  - 주요방송사 : OPT, PTP(러시아의 국영방송)  
주요신문사 : 이즈베스치야(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 시보드야(대중적인신문)
- ⇒ 러시아는 수준높은 지적수준과 예술사랑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제작등 첨단과학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타킹 등 생활용품을 전량 수입하는 등 모순을 찾아 볼 수 있다.

## 6) 기 타

○ 러시아의 명절 : 혁명기념일, 여성의날, 노동절

○ 러시아 300주년 기념행사 : 러시아예산의 3%를 투입하였음.

○ 음식

- 까샤 : 각종 곡물로 만든 죽
- 자꾸스까 : 각종 냉육, 어육, 캐비어와 야채 샐러드를 곁들인 음식
- 샤술릭 : 러시아식 돼지고기 바베큐
- 피로그 : 고기를 넣고 튀긴 빵
- 차이(차) : 러시아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대용으로 차를 주로 마신다.
- 보드카 : 러시아 전역에 걸쳐 가장 대중적인 술로, 알코올 도수가 40%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술을 마시는 방법은 작은컵에 보드카를 붓고 컵 주위에 소금을 약간 뿌린 다음 단숨에 마시는 것인데, 보드카에 대한 이러한 음주 습관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며 러시아인 1명이 자그마치 1년에 60병 이상의 보드카를 소비한다고 한다.

⇒ 이 밖에도 많은 토속음식들이 있으며, 이러한 토속 음식들 속에서는 과거 러시아 민중들의 소박함을 엿 볼 수 있다.

○ 러시아 특산품 : 보드카, 마투드시카인형(多産을 의미), 크리스탈, 후박, 녹용, 웅담, 차가버섯, 상황버섯 등

○ 대중교통

- 아프또부스 : 우리나라의 버스와 같은 것으로 일정한 노선을 운행한다.
- 트람바이 : 과거 우리나라의 전차와 같은 것으로 레일이 깔려 있으며 전기선을 타고 움직인다.(전차는 낡고 불품이 없었다.)
- 트롤리부스 : 트람바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레일이 없으며, 전기선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면 아프또부스와 비슷하다.

⇒ 가끔 트람바이나 트롤리부스 측면에 LG, 삼성전자의 광고가 되어 있어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 미트로 :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같은 것으로 시민 제1의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하철 노선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차량이 많아  
승차간격이 짧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딱 시 : 우리나라의 택시와 같은 것으로, 과거 소 연방 시절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미터 택시가 운행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자가용 소지자가  
내·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손님과 택시운전사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그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 도로의 특징 : 가운데 중앙선을 1차선 도로로 구획하여 평시에는  
긴급차량, 경찰차량이 운행하며 교통혼잡시에는 가변차선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 역명칭 : 목적지를 따서 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상트페테  
르부르크에 모스크바역이 위치하고 있다.

○ 평균수명 : 러시아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68세, 여자는 73세로 사망  
시에는 대개 화장을 한다

○ 농 사 : 모스크바에서는 재배농사가 거의 없으며 곡식, 야채, 과일은  
인근에서 가져온다.

○ 한국자동차 : 우리나라가 만든 차량(대우, 씨에로 등)들이 거리를 질주  
하는 모습이 많았으며, 우리 상품의 이미지 또한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 민족문제 : 러시아연방은 현재 21개의 공화국과 6개 지방, 50개의 주,  
2개의 시, 10개의 자치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수 민족의 자치공화국은  
16개이며, 자치주는 5개, 그리고 자치구는 10개이다.

이들 개별 민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치 지역들은 민족종교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각기 독자적인 명분과 존재 이유에 합당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성과 유지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바람은 러시아 연방과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이 구소련 아래에서 강력한 힘을 간직하고 있던 러시아는 현재 많은 타민족의 반러시아 감정과 자체 연방내의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모스크바

- 세계적인 대도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부이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1147년 유리 돌고루키 대공이 해상 무역로로 가장 적당하고 중요한 지역을 찾아 도시를 세웠는데 그 곳이 바로 모스크이다.

1918년에 레닌에 의하여 수도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이 994km<sup>2</sup>, 인구 900만명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 모스크바는 국가행정의 중심지로서 정부기관과 의회, 정부의 각 부서와 중앙 경제계획국 등이 모여 있다. 또한 모스크바에는 많은 교육기관과 문화 시설들이 있으며, 1755년에 세워진 모스크바 국립 대학에는 약 3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 지리적으로는 남동쪽으로 모스크바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연 강수량이 630mm이고, 연평균 5℃로 겨울이 길고, 한여름인 7월에도 20℃를 넘지 않는데 우리 방문시에는 10년만에 더위가 찾아와 30℃를 오르내렸다.

## <도시의 특성>

- 러시아의 수도로 방사형 가로망으로 잘 정비된 계획도시로서, 인구는 900만명 정도이고, 그중 노동인구가 600만명에 이르며, 산업인구중 220만명 정도가 공무원 및 국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 수가 64,000명 정도이다.

- 이곳에는 138개국의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3만5천개의 외국회사가 있고 외국과의 합자회사가 1만개정도 등록되어 있어 러시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러시아 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방사형 도시계획에 의거 발전되어 왔으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스크바 환상도로가 대략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도로 너머의 지역은 대부분은 녹지대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모스크바 강이 시가지 사이를 북서-남서쪽으로 굽이쳐 흐른다.

이러한 동심원과 방사형의 구조는 이 시가 성장해온 역사적 단계를 나타내며 오늘날까지 뚜렷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 요새의 성벽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만든 불바르노에 환상도로, 사도보예 환상도로, 모스크바 환상도로 등은 이 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도로망의 형태>

- 모스크바 도시계획도로의 구조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크레믈린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로 계획하여 도시외곽 쪽으로 1차, 2차, 3차순으로 도시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점차 도시가 확대되어가는 방사형구조이다.

## <도로의 구조>

- 모스크바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도로중앙부분에 녹지를 설치하여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도로변 양쪽에는 넓은 녹지와 보행로를 설치함으로써 도시전반이 공원화 된 구조로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간선도로에는 자동차와 전차가 다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교통수요 분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 도로중앙선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중앙에 별도의 넓은 공간(구획선)을 두어 국가지도자 국회의원등 VIP 전용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 도로중앙 : VIP전용도로 >



< 간선도로변 녹지 · 보행로 >

## <지하철 노선망의 형태>

- 모스크바 지하철은 방사형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시가지 중심에서 외곽지 방향으로 방사형 노선과 도시외곽를 따라 운행하는 순환노선으로 건설되었다.

## <지하철의 구조>

- 모스크바 지하철은 과거 냉전시대 군사시설 용도의 겸용을 목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깊이가 평균150m이상 최고 190m까지 지하에 설치되었다. 스탈린의 지휘하에 1937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스탈린은 지하철 건설의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닌의 후계자가 되었다. 지하철역은 가고자하는 목적지 별로 도시이름을 딴 역사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조각품들과 미술품, 대리석 등으로 구성하여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다.

### ⇒ 러시아 지하철의 문제점

러시아 지하철은 지하 190m정도의 지하에 위치하여 진출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하 공간의 환기등에 문제점이 있었다.



< 러시아 지하철 전경 >



< 모스크바 지하철노선도 >



< 모스크바 대학 >



▲ 트롤리부스(모스크바의 전기버스) : LG로고가 돋보임



< 모스크바의 육교 >

## <모스크바의 명소>

### ○ 크렘린

모스크바의 중심부에 위치한 크렘린은 관공서와 박물관, 교회들이 있는 거대한 성곽으로 성벽이 2.4km까지 뻗어 있다. 크렘린은 1156년에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많은 교회 건물들을 지었던 1400년대를 즈음하여 지어진 것들이다.

대크렘린 궁전을 비롯하여 피터 대제때 만들어진 바로크양식의 궁전 병기고, 원로원, 이반대제의 종각, 12사도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종인 황제의종 등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들과 보물들이 있으며, 15C의 장대한 교회에서부터 현대적인 의회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 크렘린은 뛰어난 러시아 문화의 유산과 역사를 엿볼수 있었다.

### ○ 붉은광장

붉은 광장은 크렘린 성벽의 바로 뒤에 있는데, 그 이름은 붉다라는 뜻과 아름답다라는 뜻을 동시에 의미하는 고대 러시아에서 유래한 것이다. 붉은 광장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퍼레이드를 펼친다. 또한 이 곳에는 지붕이 마치 양과처럼 생긴 유명한 성 바실리 대 성당이 있으며, 주변에는 국립역사박물관, GUM 백화점 등이 있다.

⇒ 러시아 최대의 굼 백화점은 밝고 화려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 붉은광장과 크렘린 >



< 굼 백화점 >

## 모스크바 사회복지시설(NO6.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시 : 2004. 8. 9
- 시설명 : 모스크바 NO6.어린이집
- 위치 : 모스크바시 까자워세프 스까야 6번집
- 규모 : 건평 246 평(농구장, 컴퓨터, 침실, 식당, 취미교실 등 )
- 설립년도 : 1995년도
- 수용인원 : 124 명
- 종사자수 : 27 명 (심리전문가 배치)
- 운영프로그램
  - 재활과 사회화 교육
  - 컴퓨터와 정보기술
  -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법적교육 등

### □ 부원장 “레나”로부터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 운영실태
  - NO6.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전액지원(100%)하는 국립 사회복지시설임
  - 입소대상 : 부모 사망, 부모들의 양육포기 등 고아 18세 이하
  - 목 표 : 어린이들에게 각종 운영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기초생활 적응훈련 : 세면, 양치, 식사예절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
  - 정서발달훈련 : 그림그리기, 만들기, 취미활동 등을 통한 심리표출, 자율성, 정서함양 배양
  - 체력단련훈련 : 농구 등을 통한 체력단련 및 협동심 배양
  - 사회적응훈련 : 나들이, 소풍, 견학, 현장학습, 법적교육등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컴퓨터정보기술, 이마용기술 등 사회적응 기술 습득
- 방문결과
  - 지속적인 자체프로그램개발 및 심리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철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도 심리전문가 배치 필요성 인식)
  - 자체 발간하는 홍보잡지가 이색적이었음.



< NO.6 어린이집 부원장 레나로부터 현황 설명 청취 >

♣ NO.6 어린이집 각종 시설 ♣



< 강 당 >



< 침 실 >



< 책 상 >



< 벽보판 >

## 상트페테르부르크

- 러시아 연방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핀란드만의 동쪽끝, 발트해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중요한 항구도시이며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600만명이다.
- 전제 군주시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알려진 이도시는 후에 페트로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고, 1924년에 러시아 공산당의 창설자인 레닌을 기념하는 뜻에서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9월 6일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리게 되었다.
- 이 장엄한 도시는 1682년에 러시아인들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피터 대제에 의해 세워졌으며 제정러시아를 붕괴시킨 러시아 혁명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 도시의 면적은 부산크기로 도심을 흐르는 65개의 강과 100개 이상의 섬이 365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평균 기온 5℃, 강수량은 630mm이다.

### <도시의 특징>

- **관광의 도시** : 1일 관광객 3만명이 찾는 곳이며, 도시 곳곳에 화려했던 제정시대를 짐작케 하는 18,19세기의 바로크 양식 건축물과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 역대 황제들이 거처하던 화려하고 웅장한 겨울궁전 등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 **역사의 도시** : 구시가지 대부분이 200년~ 250년 건물과 사회주의 정권 탄생 후 수도가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가는 1918년까지 약 2세기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한 역사의 도시다.
- **문화예술의 도시** :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쉬킨, 도스토예브스키 등의 문인과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바로 이 도시의 출신으로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 **공업 도시** :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철강, 배, 잠수함, 기계설비, 군수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이다.

## 사례조사 : 네바 강(Neva River) 정비 현황

- **개 요** : 길이 74km, 폭 50 ~ 1,200m의 Neva 강은 러시아연방 서부, 유럽과 러시아를 흐르는 강으로 라도가호(湖)에서 서쪽으로 흘러 발트해의 핀란드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구(河口)의 삼각주 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가지가 있다.

특히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에서 크고 작은 2개의 네바강으로 나뉘어 흐르는 지점 주변에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要塞)와 푸슈킨 광장·에르미타주 미술관 등의 명소가 많으며, 시내를 관류(貫流)하는 하천 이기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정비전 Neva 강의 문제점** : Neva 강은 서풍(西風)의 작용에 의해서 수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이르러 2개의 강으로 나누어 흐르면서 우수기 때에는 서풍의 영향과 더불어 홍수가 범람하여 시가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하천정비 및 이용상황** : Neva 강의 범람에 따른 주변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Neva 강에서 불가강과 백해(白海)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홍수범람과 시가지 배수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운하로서 유람선 운항 및 수운(水運)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바 강(Neva)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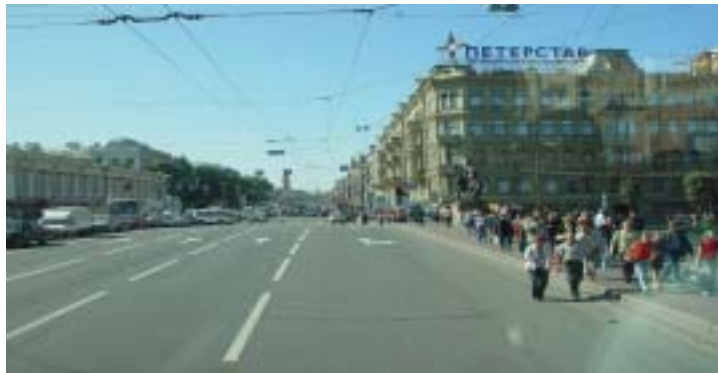
운 하 (運河)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명소>

### ○ 네프스키 대로

해군성에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수도원까지 4.5km로 뻗어 있는 네프스키 대로는 도시의 주요 도로이다. 그것은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의 광영, 자본주의 도시로서의 발전, 포위의 비극, 최근의 요동치는 정치생활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체물이다. 그것은 문화생활, 경제활동 등 그리고 공공오락의 중심이며, 패션의 근원지다. 가장 큰 박물관과 도서관, 극장과 음악홀, 상점과 은행, 호텔과 식당이 이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 서울의 종로, 테헤란로와 비슷함을 느낄수 있었다.



< 네프스키 대로 >

### ○ 바실레프스키섬의 뱃머리 등대

면적이 1,090ha인 바실레프스키섬은 네바강의 삼각주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일반적으로 곳이라고 알려진 섬의 동쪽끝은 뾰족한 뱃머리와 같이 네바 강 깊은 물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대 네바강과 소 네바강의 두 가닥 갈라진 곳으로 향한다. 이곳에 세워진 32m 높이의 뱃머리 등대는 해전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물로써 기둥은 뱃부리로 장식되어 있다. 기둥 꼭대기에 설치된 삼각대의 접시는 상트페트르부르크 해항의 등대로 쓰였으며, 접시에 기름을 채워서 여명에 불을 켜다.

⇒ 고전주의 시대의 세계적인 건축의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 피터대제의 여름궁전

여름궁전은 피터의 유명한 집회, 궁전축제 및 외국대사의 영접이 일어난 현장이었다. 18세기말까지 그 정원은 왕실 고관 같은 선택된 소수만이 갈 수 있는 장소였으나 현재는 시민에게 인기있는 놀이 장소가 되었다.

⇒ 여름궁전의 전면은 러시아의 해군력을 찬양하는 신화적 주제를 나타내는 얇은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어 피터대제의 근엄함을 알 수 있다.



< 여름궁전 >



< 여름궁전 정원 >

### ○ 에르미타주 박물관

에르미타주 국립 박물관은 러시아의 최대 전시 박물관이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비견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역대 황제의 거처였던 겨울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전시실을 이르면 총 27km(총면적 4만6천)길이가 될 정도로 규모가 크며 회화, 그래픽, 조각, 발굴품 등 소장품 300만점으로 1점당 1분씩만 보아도 5년이 걸린다는 규모이다. 소장품의 종류와 예술적 가치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원시, 고대 예술품에서부터 현대의 피카소에 이르는 서유럽 예술품 등이 골고루 소장되어 있다.

⇒ 수많은 문화재를 보면서 비록 생활은 여유롭지 못하지만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성이 풍부한 러시아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에르미타주박물관 >



◀ 상트페트르부르크의 신호등 : 일자형임



< 상트페트르부르크의 버스승강장 >

## 2. 핀란드(Finland)

### 기 본 현 황

 Finland



- 수 도 : 헬싱키
- 인 구 : 5,185천명
- 면 적 : 337,030km<sup>2</sup>
- 민 족 : 핀족(93.5%), 스웨덴족(6.3%)
- 언 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 종 교 : 루터복음교
- 화 폐 : 유로화(EUR)
- 1인당 GNP : 20,378\$

■ 체류기간 : 2004. 8. 12

■ 방문도시 : 헬싱키

### 1) 역 사

- 핀란드인들은 1세기경부터 현재의 국토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1155년에 스웨덴의 침략을 받아 650년간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초에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1920년에 이르러 핀란드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 사회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혼합된 공화국으로서 사회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준법정신이 매우강한 나라로 95년 1월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73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2) 지리 · 기후

- 북위 60-70°,동경 20-32°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스웨덴, 동쪽으로는 구소련, 북쪽으로는 노르웨이와 접해 있다.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국가로 국토의 총면적은 약 337,030km<sup>2</sup>로 65%는 숲, 10%는 물, 8%는 농지, 17%는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87,888개에 이르는 많은 호수와 30,000에 이르는 섬으로 핀란드의 국토는 일년내내 아름답다.

- 지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후를 나타낸다. 대륙성 기후로 여름의 평균 기온은 18℃정도이며, 겨울의 평균기온은 -7℃이다. 백야 현상을 보이는 핀란드는 5월부터 8월까지 낮의 길이가 19시간이며, 반대로 겨울은 밤의 길이가 매우 길다.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여름은 따뜻하며, 봄과 가을도 온화하다.

겨울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로 매우 길고, 북부지역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 눈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습기가 적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따뜻하다. 북극지역은 백야현상으로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16시간 지속된다. 겨울에는 태양이 없는 흰한 낮이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북부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2달간 지속된다.

### 3) 정치 · 행정

-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은 6년 단임제
- 국회는 정원 201명(여성 78명), 단임제로 임기는 4년  
14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 지방의회
  - 비례대표제로 인구에 따라 17~85명의 의원이 선출 구성(임기4년)
  - 의회에서 의장과 자치단체장을 선출
- 지방정부
  - 6개의 주(Province)정부
    -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통치
    - 주정부는 경찰권을 포함한 지역행정 책임
  - 올란드 자치주(the Aland Islands)
    - 1856년 크림 전쟁 이래 국제법상 비무장지역으로 선언되어 특별지위를 누림.

- 1920년 이후 강력한 자치정부를 두고 1951년에는 자치권 재확인
- 총선에서 선출되는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의회의 승인 없이는 헌법적 성질을 가진 법률들을 변경또는 폐지할 수 없음.
- 최고 통치자인 주지사 포함 7명의 각료가 통치
- 452개의 지방자치시(municipalities)
  -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시행정을 수행함(학교, 병원, 보건센터, 도시계획 및 사회복지 사업 등)
  - 지역주민에 대한 세금징수권을 보유하는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은 축소됨
  - 이 때문에, 자치시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유자치시(free-municipality)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자치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의회(municipal council)는 직접 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제로 선출(자치시 인구 규모에 따라 17~8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 및 시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현재 대통령, 국회의장, 헬싱키시장 : 여성

- 핀란드는 선진경제국으로서 주요산업은 철강, 기계, 펄프이며 특히 질 좋은 화강암과 대리석이 풍부하고 목축과 산짐승이 많아 모피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무선핸드폰, TV등 첨단 전자상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주요교역국은 미국, 러시아등이다.
- 최근 경제현황
  -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까지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었던 핀란드 경제는 94년이래 저물가, 고성장, 높은 경상수지 흑자 실현 등 괄목할 만한 거시경제적 성과를 거양함.
  -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 합리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영, 임금 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등에 기인
  - 1993년 GDP의 8.3%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98년에 처음으로 GDP의 1.5%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 크게 회복

- 1990년대초의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도 90년대 중반부터 큰 폭의 흑자(GDP의 5%)로 전환
- 물가상승율과 실질이자율이 크게 인하  
(장기 이자율 92년 12.0% → 99년 4.1%)
- 1993년 17%에 달하던 실업율도 현재 9%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산업구조도 과거 전통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으로 변모함.
  - 공업 및 건설 21%, 농림수산업 6%, 서비스 73%로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증가.
- 최근의 경제성장은 특히 Nokia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무선기술의 다양한 응용, bio-tech, 환경산업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2002년 1.8%, 2003년 약 2%)

#### 4) 사회 · 문화

- 국민성은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빈부의 차가 없으며, 남녀가 평등하고 일조량과 저온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한다.
- 정서적으로도 풍부하여 주말마다 식당에 가서 탕고를 즐겨 춘다. 특히 핀란드인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사우나를 들 수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면 사우나에서 지친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한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전국민의 생활습관이다.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비는 무료이고,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적은나라로 만1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 핀란드인은 스웨덴인이 전달해준 뛰어난 유럽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수준이 높다. 여류작가 안손 Tove Jansson은 현대의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란페 Sillanpaa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이 높다. 시벨리우스도 핀란드의 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음악가이다. 핀란드의 건축 수준 또한 세계적이다, 오타니에미 공과대학을 설계한 알토 Alvar Aalto는 미국의 MIT에서 객원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 5) 기 타

- 핀란드의 축제 : 율루(Joulu : 한해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크리스마스)
- 음식
  - 카렐리안 스테이크 :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2cm 정도로 잘라 양파와 함께 끓인후 삶은 감자에 얹어 먹는것.(독특한 핀란드 요리)
- 평균수명 : 핀란드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약74세, 여자는 약80세임
- 자동차 소유 : 국민 2명당 1대꼴
- 사회보장제도 : 아동건강과 육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로서, UNICEF 통계에 의하면 1세 미만의 유아사망율이 0.4%로 세계최저이다.

### 사례조사 : 핀란드의 IT산업

- 시장규모
  -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
  - 2000년 시장규모는 80억 유로이상
  - Telecommunication 54%, 컴퓨터 관련 46% 각각 점유
- IT산업은 핀란드 수출의 1/3차지
  - 이중 대부분은 Nokia의 핸드폰 및 네트워크장비
- IT산업생산(하드웨어)의 62%가 수출
  - 핀란드 IT생산은 148억유로, 이중 120억유로 수출
- IT산업에 필요한 부품은 92%는 수입
  - 전자부품산업 미발달로 EMS 및 아웃소싱 이용

## 사례조사 : 부패없는 나라 핀란드 < CPI >

— 국제 투명지수(CPI) 세계 1위 (2000, 2001, 2002, 2003년) —  
: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 ★ CPI (국가 청렴도 지수)

-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뇌물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대중, 기업인, 정책분석 전문가 등의 인지지수.
-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가중치 부여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0에서 10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0이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이고 10이 부패가 없는 국가이다.
- 핀란드에 부패가 없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 요인을 들 수 있음.
  -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부정의 필요성이 줄어들음 : 실업수당, 주택지원 등의 완비로, 노숙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음.
  -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 : 이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으로서, 핀란드는 러시아의 자치령으로서 러시아로부터 비합리적 압력 또는 지시가 온다고 판단하면, 자치 헌법 등 법령 규정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압력을 지혜롭게 막아내던 전통이 있음.
  - 인구가 5백만명에 불과, 세무당국이 국민들의 예금 계좌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음.
  - 일반인들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공공분야에서 구성원들의 부조리가 쉽게 노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검찰총장과 사정감독원장(chancellor of justice)은 정권변동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인의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보다 소신있는 "법의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민의 약 90%가 루터교에 속해 있음. 매주 교회에 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문화와 관습이 근면과 절제를 강조하는 루터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노점 상인들도 신용카드를 받고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정도로 상거래 관행이 공개되어 있음.
- 국민성이 "교과서적"이라고 할 정도로 불필요한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주어진 규정을 잘 따르는 관습이 있음.

※ 국제경쟁력지수(GCI) 세계 1위(2001년) : World Economic Forum 발표

※ 현재 및 미래의 경쟁력이 세계제일

### < 우리나라 CPI 와의 비교 >

| 연도별  | 조 사 대상국 | 한 국 |     | 핀 란 드 |     | 비 고                                          |
|------|---------|-----|-----|-------|-----|----------------------------------------------|
|      |         | CPI | 순 위 | CPI   | 순 위 |                                              |
| 2000 | 90      |     | 48  |       | 1   | • 2003년의 경우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上位 5위권에 포함. |
| 2001 | 91      |     | 42  |       | 1   |                                              |
| 2002 | 102     |     | 40  |       | 1   |                                              |
| 2003 | 103     | 4.3 | 50  | 9.7   | 1   |                                              |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국가청렴도는 2003년기준 50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수준과 경제 수준은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부유국이면서도 국가청렴도는 세계 최고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모범 국가이다

## 헬싱키

- 핀란드의 수도로 인구는 55만이며, 일명 <발트해의 아가씨>로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핀란드만으로 흐르는 강의 끝쪽에 있었으나, 1640년 지반 융기와 겨울철 결빙 때문에 곳의 앞쪽인 현재의 위치로 항구와 시가지가 이전되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후는 북위 60°10'의 고위도에 위치하지만 온화한 편이다.

### <도시의 특성>

- 헬싱키는 수많은 섬들이 떠있는 헬싱키만 안쪽에 자리 잡고 일찍부터 소련과 스웨덴, 독일을 잇는 대형선박이 드나드는 국제적 항구도시이다. 항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통령관저와 시청사, 그리고 그 뒤로 솟은 대성당이 수준 높은 건축미를 자랑 한다
- 헬싱키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시의 규모와 전자도시는 우리시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핀란드만에는 수많은 보트와 유람선이 정박하고 있으며, 인근국가 스웨덴 등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페리(Ferry)」 실자라인(SILJA LINE)과 바이킹라인(VIKING LINE)이 유명하다.



< 헬싱키 시가지 >



< 헬싱키 항구 >



< 대통령 집무실 >

## <해상교통>

### ○ 실자라인(SILJA LINE)

실자라인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발트해 관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핀란드와 스웨덴을 오가는 특급 호화 유람선이다.

헬싱키와 스톡홀름을 오가면서 선상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페리에는 풀장, 카페, 레스토랑, 사우나실, 나이트클럽, 카지노, 환전소, 면세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헬싱키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아침에 스톡홀름에 도착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밤중에 수면시간을 이용 바다 가운데 정박하여 시간 조절을 하는등 관광휴양 계획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줄을 있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 — 실자라인(SILJA LINE) 개요 —

- 구 간 : 헬싱키↔스톡홀름
- 규 격 : 58,400톤급 12층  
(길이 : 203m, 너비 : 31.5m)
- 승객수 : 2,852명, 자동차 500대
- 선 실 : 985실, 침대 2,980개



## <묘지공원>

- 헬싱키에는 도심속에 묘지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묘지의 형태는 푸른 잔디위에 석재묘비만 설치하여 아름답고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일반 도시공원과 같이 친숙하게 접하고 있다.

(핀란드의 장묘문화 : 70%이상 화장, 30%이하 매장)



◀ 묘지공원 전경

## <헬싱키의 명소>

### ○ 시벨리우스 공원(Sibeliuksen Puisto)

핀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공원으로 여류조각가 힐토넨이 24톤의 강철관으로 제작한 파이프오르간 모형의 조형물과 시벨리우스 초상이 유명하다.

※ 시벨리우스는 평생을 조국에 대한 민족적인 소재를 주제로 작곡하였다.  
(대표작 : 투오넬라의 백조, 핀란드아, 제1교향곡 등)



< 파이프오르간 조형물 >



< 시벨리우스 초상 >

### 3. 스웨덴(Sweden)

#### 기 본 현 황



- 수 도 : 스톡홀름
- 인 구 : 8,878천명
- 면 적 : 449,964km<sup>2</sup>(한반도의 2.4배)
- 민 족 : 북게르만족(95%), 랍족(0.2%)
- 언 어 : 스웨덴어, 핀란드어
- 종 교 : 루터복음교
- 화 폐 : 스웨덴 크로나(Krona)
- 1인당 GNP : 25,400\$

▣ 체류기간 : 2004. 8. 13

▣ 방문도시 : 스톡홀름

#### 1) 역 사

- 스웨덴인은 북부 게르만인의 일족인 고트인과 스비아인이 스웨덴에 정착해 융합됨으로써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이킹 활동이 왕성했던 9세기경 부터다. 하지만 11세기에 바이킹 활동이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가 탄생되었다.
- 이후 스웨덴은 유럽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 한때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는 등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고 있으며, 같은 북유럽 국가들끼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교가 수립된 것은 1959년이며,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하여 페르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나라로서 북한과는 1973년에 수교하였다.

## 2) 지리 · 기후

-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49,964km<sup>2</sup>로 한반도의 두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동서의 길이는 499km, 남북의 길이는 1,574km로 가늘고 긴 국토를 가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경계로 노르웨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동부로는 핀란드와 접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토는 대부분이 바다와 접해 있으며, 동부는 발트해와 보트니아만, 서남부는 스카레가크와 카테카트 해협, 남부는 외뢰순 해협이 위치해 있다.

유럽에서 네번째로 큰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삼림지대가 전국토의 50%, 경작지가 10%, 호수와 하천이 9%, 기타 31%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도 96,000여개에 달한다.

-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북부의 노를란드 지역은 1년 중 6 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으며, 여름의 평균기온은 14.7℃, 겨울의 평균기온은 -12.8℃으로 하루종일 영하권에 머물게 된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의 백야현상으로 수 주일에 걸쳐 태양이 24시간 지속되기도 한다. 스웨덴 국토의 7분의 1이 북극권에 속한다. 이에 비해 남부지역은 겨울이 짧으며 날씨도 대체로 온화하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16.6℃, 겨울의 평균기온은 -0.6℃이다. 연강수량은 500~750mm로 남동부의 발트해 연안과 북부의 노를란드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300~400mm로 적은 편이나 서남부의 노르웨이 접경 고산 지대는 약 2000mm로 많다.

### 3) 정치 · 경제

#### ○ 국 왕

-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국가 원수이다.
- 주요 권한으로는 국회의 개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접수 등 의례적인 직무만을 행한다.
- 여타 입헌 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국회의장이 총리 임명권을 행사한다.

#### ○ 국 회

- 단원제로써 임기 4년의 349명 의원으로 구성된다.(여성의원 50%)
- 주요 권한으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중앙은행 및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 ○ 행정부

- 총리는 국회의장이 정당 대표들과 협의 지명,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각료 임명권(국회 동의 필요)을 보유하고 있다.
-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총리, 부총리 1명, 10개 부처에 장관 19명이 있다.

#### ○ 사법부

- 법률사건과 행정사건을 분리, 법률법원과 행정법원이 각기 독립하여 고유의 관할권을 갖고 각각 3심제도를 택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 부동산, 노동, 환경, 해상, 특허, 시장 법원등이 있다.
-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행정대법원, 행정고등법원, 주행정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스웨덴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로 사유재산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방법은 세제와 저소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세제부담이 상당히 크며 세금의 일부는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 서비스 등으로 다시 개인에게 환원된다.
- 경제정책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를  $2\% \pm 1\%$  범위내 유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 억제정책, 실업률을 4% 이내로 유지하는 고용증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4) 사회 · 문화

- 스웨덴의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8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젊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이민을 받아들였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약 70만명의 외국인이 이주하여 정착했다. 70만명중 약 50%는 핀란드인이며 나머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동구 및 기타지역의 이민자들이다. 전체 인구의 95%가 스웨덴인이며, 이외에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편족 약 2만 이 북부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 스웨덴인은 게르만족의 한 갈래로 다른 인종과의 혼혈 정도가 적으며, 북부 지방의 소수 토착민인 램족을 제외하면 북게르만어파의 일종인 스웨덴어를 사용한다.  
스웨덴어 외에도 영어와 독일어도 널리 쓰인다. 매우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협력성은 강하나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보인다.
-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기초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비는 무료이고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를 합친것과 같은 기초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5) 기 타

- 스웨덴의 축제 : 스웨덴에서는 매년 6월23일 또는 그 전 토요일 저녁 부터 하지축제를 시작한다. 이날 저녁은 전국에 걸쳐 야외에서 백야의 하늘 아래 댄스 파티가 벌어진다. 이밖에도 스웨덴은 독실한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관련 행사는 모두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 음식
  - 스웨덴의 전통요리 : 미트볼(뽕은 고기 경단에 과일 잼을 곁들인것)
- 평균수명 : 79.5세(95세 이상 할머니가 많음)
- 노동시간 : 주 5일제 근무로 출근은 7시부터, 퇴근은 오후 3시부터 하며,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 성문제(성개방의 의미) : 성윤리관이 희박하여 10대의 혼전 성행위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 더욱이 스웨덴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기 때문에 남성측의 일방적인 외도는 전혀 용납 되지 않는다.(만 15세 이전의 성 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사례조사 : 스웨덴의 IT산업단지(Kista Science Park)

#### □ Kista Science Park 개요

- 1976년 시내에서 북쪽으로10km 지점에 IT산업단지인 키스타 과학단지 (Kista Science Park)를 조성하였으며, Kista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교되면서 세계적인, 과학단지로서 이 곳에서는 **Ericsson, Nokia, IBM**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IT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과학단지로 발전되고 있다.
- Kista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고, 반도체 연구를 위한 고청정실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대학과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시스타의 일렉트럼(Electrum) 복합건물에는 스웨덴왕립공과대학(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과 스톡홀름대학(SU; University of Stockholm)의 통신공학 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부가 입주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IT산업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Kista Science Park →

- 규모: 200만㎡ (66만평)
- 입주기업 1,000개
- 근무인력 : 30,000명
- 대학생 : 3,500명



## □ 성공요인

- 스톡홀름 시정부의 기업가 정신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마인드이다.
- Kista Science Park는 산학협력업체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이다.

세계적인 통신기업인 에릭슨의 GSM, GPRS, 3세대 CDMA 등의 개발은 스웨덴 왕립공대와의 기초연구에 대한 산학협력이 뒷받침이 되었다.

- 과학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스웨덴의 사회적 분위기, 높은 교육투자 등도 우수인력 양성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 Kista Science Park가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유리한 입지적인 선택과 스톡홀름 시의 혁신여건 조성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시사점

- Kista Science Park의 동태적인 흐름과 성공요인을 분석해볼 때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우리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 특히 시스타 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과정에서 스톡홀름 시의 정책 대응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스톡홀름

- 스톡홀름은 수도권인구 180만명(시가지 100만명)정도의 스웨덴의 수도로서 발트해 와 마라렌 호수가 만나는 곳에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북구의 “베네치아라” 불린다. 시내에는 중세의 분위기를 풍기는 구시가지와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함한 현대적인 신시가지가 공존하며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이다.

### <도시의 특성>

- 스톡홀름은 1년 중 6개월 동안 눈으로 덮여 있으며, 특히 여름에는 수주일 동안 태양이 20시간이상 내리쬐는 백야가 있으며, 반면에 겨울에는 한낮에 이미 태양이 지는 도시이다.
- 13세기부터 세워져 현재도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고대도시로서 몇 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시내에는 왕궁과 옛 시가지마다 대교회를 비롯한 각종 교회, 시 청사, 의회, 국립 박물관, 바사 전함 박물관 등의 유서 깊은 건물들과 스톡홀름 앞바다 의 물 위에 떠 있는 바사 전함 박물관 등 볼거리들이 많은 도시이다.

### <페 리>

- 스톡홀름 주변의 24,000여개의 섬을 페리가 연결하며, 크고 작은 강이나 운하로 연결된 내륙의 도시들도 페리로 이어진다.
- 페리는 연간 운항하는 노선과 여름에만 운항하는 노선이 있다.  
(요금은 1회에 20Skr 정도)

### <시내교통>

- 지하철은 3개 노선으로 지하철역 표시는 “T” 자이며, 티켓은 창구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 할수 있다.
- 택시는 미터기가 달려 있지만 자유요금제로, 회사마다 요금이 다르므로 사전에 요금을 합의해야 한다.

## 스톡홀름 시청사 방문

- 방 문 일 : 2004. 8. 13
- 방문목적 : 스웨덴의 지방자치  
현황설명 청취, 의견교환
- 시청사 개요
  - 건축년도 : 1923년도
  - 위 치 : 쿡스홀멘섬 남쪽
  - 시청사 부루홀 : 수용인원 1,400명  
(매년 노벨상 수상 축하 만찬회 개최)



< 스톡홀름 시청 >

### □ 스웨덴의 지방자치 주요내용

- 스톡홀름 시는 약 750년의 역사의 지닌 유서깊은 도시로 옛날 건물이나 문화재는 시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 축하 만찬식장으로 잘 알려진 스톡홀름 시청사는 랑나르 웨스트베리(Ragnar Österberg)의 설계로 1911 ~ 1923년에 건설되었음. 시청사는 800만개의 적벽돌로 지어진 스웨덴 최고의 내셔널로만틱 양식의 건축물로 사무실, 회의장, 행사장 등이 있다.
- 스톡홀름의 경제는 매우 굳건한 편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180만명이 사는 스톡홀름에는 75만명이 시 중심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어린이보호, 가난한 사람 지원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 세금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 세금을 내고 있음. 재정의 68%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20%는 과세, 대금, 임대료 등에서, 4%는 시내에서 집(땅)을 가진 사람이 내고 있으며, 그 외 기타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 스톡홀름은 1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구역마다 약 3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음. 구역마다 각 정치인은 어린이보호, 장애인, 노인들을 집중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1919년 이후 여자참정권을 인정하였으며,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짐. 75만명의 인구가 10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자치구의원으로 전문의원, 회사경영의원 등으로 활동함. 이들은 시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있음. 시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은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며, Mayor가 없음. 이들과 전문분야 사람과는 협조채널이 잘 가동되고 있다.
- 시의회는 시 전체 운영을 위한 선생, 간호원,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 등 46,0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 90년까지만 하더라도 18개 구역 각각 양로원, 어린이보호 문제 등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였으나, 그 이후 다같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특히 18개 구역이 다같이 계획이나 법률이 적용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으며, 항상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빨리 바꿈. 평등한 것을 중요시하며, 월급 또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하며, 결정사항이 있을 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구역, 어린이 및 노인보호, 사회 의료보호는 국가에서 따로 정해져 있음. 단지 시에서는 법률을 토대로 삶을 위한 보조 및 실업보조 등을 결정함. 실업자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전 1년 이상 일해야 하며, 80%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으며, 300일 보조가 가능함. 고용주의 부담률은 약 77% 정도이며, 이는 오히려 기업발전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 사회적으로 중요한 보조는 병자, 장애인, 어린이, 정신이상자, 노인들에 대한 보조임. 대략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보조금 중에서 48%는 노인을 위해, 32%는 장애인과 병자를 위해 15% 정도는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 연금은 임금수준의 80%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나, 재정상태가 나빠져 30%는 정부에서 정부보조로 그리고 50%는 개인이 돈을 축적해놓았다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 아픈 사람이 입원하였을 경우 1일째는 개인이 부담하며, 14일까지는 기업에서 80%를 지급하며, 15일째부터는 월급의 8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 정신장애자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국의 어느 장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 집에서 치료받든 정부보조가 있음.  
입양자부모의 경우 애가 아플 때 60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스웨덴의 담세율은 기본적으로 30%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50%까지 부과된다.(참고 : 우리나라는 22% 수준임).

####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기초단위인 286개 우리의 시·군과 같은 코문과 광역단위인 23개 주(도)로 구성
- 지역간 협력을 위해 시·군·면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연맹을 주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주지방단체 결성

#### ◆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 주지사 : 임기6년(중앙정부가 임명)
- 주행정위원회 : 주의회에서 선출된 14명으로 구성(행정업무 처리)
- 주의회 : 의결기관(지방세 부과, 과세, 의료, 교육 등 관할)
- 시·군·면행정위원회 : 최소 5명이상 11~17명으로 구성(시·군·면의회에서 임명)

#### ◆ 스톡홀름 시의회

- 1863년 시의회 구성 : 의원101명(여성의원 49명)

#### ○ 방문결과

- 시청사 내에 있는 의사당은 밝고 화려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시민에게 공개되어 예식장 등으로 활용 되고 있음.
- 모든 민원은 인터넷, FAX, 전화를 이용 신청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민원관련 부정부패가 전혀 발생치 않아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필드레데 양로원) 방문

- 방 문 일 : 2004. 8. 13
- 시 설 명 : 스톡홀름 필드레데 양로원
- 규 모 : 중앙센터, 112개 APT (14평형, 23평형)  
(사무실, 레스토랑, 도서관, 물리치료실, 치매환자실, 정원 등 )
- 설립년도 : 1985년도
- 수용인원 : 115 명(치매환자50명 포함)
- 종사자수 : 30명 (간호사4, 간호보조자6,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인근 보건소에 의사 5명 상주 근무
- 주요프로그램
  - 연령, 신체에 따라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
  - 쏫트레이닝, 물리치료, 수예·자수, 옛날노래부기, 음식만들기 등

### □ 사회복지공무원 “우사”로부터 현황청취 및 시설견학

#### ○ 운영실태

- 필드레데(Piltradet)는 시립 양로원임.
- 입소대상 : 전에는 병든 사람만 입소하였으나, 현재는 건강한사람도 65세 이상되면 입주가능(개인신청 또는 추천에 의해 순서대로 입소)
- 시설주변에 APT가 위치하여 수시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토론 및 관찰
  - 지원 필요시 시에 보조 요구
- 특이사항 : 정원 잔디밭에서 선텐 등 여유를 즐김

#### ○ “벤티” APT 방문

- 벤티 할아버지(82세)는 독신으로 전직이 은공예가로 하반신 불구임.
- APT 구조는 침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미술품과 오래된 가구를 소장하고 있었음.
-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친구가 많고 평소 꼬냑을 즐긴다는 벤티 할아버지는 무척 소박하고 밝은 성격 이었음.

## ○ 방문결과

- 시설내에 요일별 사회복지사 근무자 명단을 항상 비치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만들기, 수예, 옛날노래부르기, 이벤트행사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복지시설과는 다른 안락하고 편리함을 느낄수 있었음.



< 사회복지공무원 “우사”로부터 필드레드 양로원 현황설명 청취 >

## ♣ 필드레드 양로원 시설 견학 ♣



< 정 원 >



< 레스토랑 >



<도 서 관>



<수예·자수실>



<물리 치료실>



<음식 만들기 장소>



<사회복지공무원 우사의 시설안내>



<벤처 APT 방문>

## < 스톡홀름의 명소 >

### ○ 옛시가지 감라스탄 지구

뻥뻥이 들어찬 유서깊은 건물 사이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지는 구시가지다. 13세기 요새가 세워지면서 형성되기 시작해 16~18세기에 최대의 번영을 구가했다. 구시가지라는 이유로 허름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스톡홀름의 재력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고급주택가로 사랑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서깊은 건물은 식당·디스코텍 등으로 변신해 신흥 상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다.



< 감라스탄 거리 >



< 스톡홀름 관광지도 >



< 스톡홀름 시가지 >

## ○ 바사 박물관

스칸센 서쪽에 위치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 바사호를 원형 그대로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바사호는 스웨덴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던 구스타프 2세 시대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처녀 항해를 위해 스톡홀름 항구에 들어서려는 순간 돌풍으로 침몰한 왕실 전함이다.

그후 바다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1956년 해양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에 의해 발견돼 333년 만인 1961년 인양 되었다.

총길이 62m, 최대폭 11.7m, 높이 50m, 배수량 1,300t으로, 당시로서는 꽤 큰 전함에 속했다. 박물관 내에는 원형을 복원하여 전시되어 있으며, 인양장면 등을 찍은 기록영화도 상연된다.



< 바사 박물관 >



공중화장실 (정면)



공중화장실 (측면)

☞ 스톡홀름 시가지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로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4. 노르웨이(Norway)

### 기 본 현 황

 Norway



- 수 도 : 오슬로
- 인 구 : 4,550천명
- 면 적 : 324,220km<sup>2</sup> (한반도의1.5배)
- 민 족 : 노르웨이인, Sami족(1%)
- 언 어 :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 종 교 : 루터복음교(94%)
- 화 폐 : 노르웨이 크로나(Krona)
- 1인당 GNP : 35,630\$

▣ 체류기간 : 2004. 8. 15

▣ 방문도시 : 오슬로

### 1) 역 사

- 북유럽 국가 중에 노르웨이는 비교적 통일이 늦은 편으로 , 872년에야 비로서 여러지역이 합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그후 14세기경 “칼마르 연합” 에 따라 덴마크왕이 스웨덴, 노르웨이 왕을 겸하게 되었다.
- 1523년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으나, 노르웨이에 대한 덴마크의 지배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814년 킬 조약에 따라스웨덴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왕을 겸하고 있던 스웨덴 왕 카를 14세 밑에서 노르웨이 헌법을 제정하였고, 마침내 1905년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호콘 7세를 노르웨이 국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 유럽연합(EU) 미가입국으로, 1959년 북유럽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2) 지리 · 기후

- 세계 지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노르웨이의 총면적은 323,877km<sup>2</sup>이다. 동부쪽으로는 소련, 핀란드,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부에는 노르웨이해, 북해와 대서양이 위치해 있다. 2만km가 넘는 해안선과 남단에서 북단까지 일직선으로 1,750km나되는 피요르드로 유명하다.  
국토의 형태는 남북으로 좁고 긴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해 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2,000여개의 섬을 포함하여 약 15만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 내륙지방의 경우 여름에는 매우 더우며, 11월에서 이듬해 3월에 이르는 겨울에는 극도의 추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부 저지대의 경우 해안 지대보다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가 더 심하다. 북부내륙지대는 한여름에 백야현상이 계속되며, 겨울에는 하루종일 어스름한 여명 상태가 계속된다.

## 3) 정치 · 경제

- 1905년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웨덴에서 분리 독립, 덴마크의 왕자였던 Carl을 국왕 (Haakon VII) 대한 이후 입헌 군주제 유지하고 있음.
- 노르웨이 헌법은 1814년5월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입헌 군주제하의 내각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 현행 제도적 관행은 영국과 유사하다.
- 헌법상 국왕은 교회의 수장이며, 총리 및 각료 임명권, 법률거부권, 국군통수권을 보유하나, 형식적이다.
  - 현 국왕은 하랄드 5세 (King Harald V)(91.1.21 즉위)
  - 노르웨이 왕실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향유하고 있다.

- 의회는 전체의원 165명의 1/4이 상원에, 나머지 의원은 하원에 해당
- 지방제도
  - 19개 州(County)로 구성
  - 435개의 지방 자치 행정 기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과세, 사회복지 정책 등에 있어 자치권을 보유
- 경 제
  - 주요산업은 목재, 펄프산업, 어업(연어), 건축업, 석유화학 등이며 산림,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의 74%가 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 4) 사회 · 문화

- 낙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국민성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많은 노르웨이의 예술가들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그 분야는 연극, 영화, 그림, 민속무용, 문학 등이다. 노르웨이인들은 자연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주택의 80%가 목재이고 별장의 나라라 말할 수 있을만큼 산장이나 해변가에 별장을 갖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가를 별장에서 보낸다.
- 노벨평화상은 매년 10월 10일 오슬로에서 수여되며,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와 의료비는 100% 무료이다.

#### 5) 기 타

- 노르웨이의 명절과 공휴일 : 크리스마스(Jul)와 부활절(Paaske)이 국민들의 가장 큰 명절 또는 연중 행사가 되고 있으며, 또한 5월17일은 독립 기념일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 ○ 음식

- 북유럽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생선요리를 중심으로 갖가지 메뉴를 모아 놓는 바이킹요리, 콜보르(Koldbord)가 유명하다.

### ○ 결혼식 : 주로 교회나 법원에서 한다.

### ○ 국민스포츠 : 스키(보통 2살때부터 배운다)

## 오슬로

-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는 9백여년전 북유럽을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로 여름철이나 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겨울철에도 늘 젊고 패기 있는 분위기를 발산한다.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8세기 이후로 바이킹의 활동이 두드러져 바이킹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피요르드의 북쪽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구는 465천명이다.
- 타 유럽국가들의 수도와는 달리 시골과 같은 한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면적의 3/4이 삼림과 전원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 내내 수영과 스키를 즐기고자 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드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 <도시의 특성>

- 오슬로는 북유럽의 수도 중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유럽에서 큰 면적의 도시 중 하나이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중심지는 19세기에서 20세기 건축물 스타일이 복합되어 있다. 나무와 다양한 색깔이 조화되어 있는 도시의 빌딩 그리고 공원과 광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오슬로에서는 거리가 너무도 깨끗한 데 놀라게 된다. 그곳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오슬로는 조그만 도시지만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이다. 고뇌의 화가 뭉크를 만날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조각가 비겔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 두 예술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슬로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왕 궁>



<조각공원>



<오슬로항의 보트 선착장>

## 오슬로 시청사 방문

- 방 문 일 : 2004. 8. 15
- 방문목적 : 노르웨이의 사회복지  
및 옴부즈만제도 조사
- 시청사 개요
  - 건축년도 : 1950년도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1931년에 착공)
  - 위 치 : 항구에 위치함
  - 시청사 : 매년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  
2층에 세계적인 화가 몽크의 <인생>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음



<오슬로 시청>

### □ 노르웨이의 사회복지 및 옴부즈만제도 주요내용

#### ◆ 노르웨이의 사회복지

- 1967.1.1 사회보장법(National Insurance Act)이 발효하여,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대체하게 되었음.
- 광범위한 의료보호 혜택을 위한 재원은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국민 의료 기여금과 고용주의 payroll tax를 통해 염출됨.
- 노인연금, 의료혜택(질병, 신체적불구, 임신, 출생등), 구호금 지원, 실업자, 무능력자, 직업상해자, 과부, 홀아비, 미혼모 등 에 대한 보호, 사망 경우 지원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이 가능케 됨.
- 노르웨이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동 혜택에서 제외됨.

- 1998년 노르웨이는 GDP의 7.2%를 의료보호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경제활동인구의 8%가 의료보호(healthcare)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운영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긴축재정기조유지 및 석유기금 조성운영.
  - OECD는 석유기금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의 연금 및 의료보험 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옴부즈만 제도**

- 노르웨이 의회는 총선이 치러진 다음해 1월1일부터 4년 임기로 의회 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을 임명.
  - 옴부즈맨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의원일 필요는 없음.
  -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유래.
- 동 제도의 취지는 개인이 정부(국가, 주, 시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옴부즈맨은 정부와 개인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으로서 그의 판정은 명령이 아닌 권고임.
- 옴부즈맨은 제출된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만약 정부의 행위가 위법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옴부즈맨이 판정할 경우, 해당 관청이나 관료는 해당건을 재고하고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의 권고를 따르게 됨.
- 1962년 옴부즈맨법은 옴부즈맨이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옴부즈맨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노르웨이는 이외에도 군인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중.

### ◆ 노르웨이 정부

- 내각책임제 국가인 노르웨이의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에 집중되어 있다.
- 정부의 조직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인 수상을 비롯하여 15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 ◆ 노르웨이 의회

- 노르웨이의 의회는 스토르팅(Storting)이라고 불리며, 165명의 의원 가운데 1/4이 상원에 해당하는 러그팅(Lagting)을, 나머지 의원들이 하원에 해당하는 오델스팅(Odelsting)을 이룬다.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 ◆ 지방자치

- 19개의 필케(주)와 435개의 코뮈네(Kommun :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 필케와 코뮈네 단계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 지방정부는 국민투표 중간에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로 구성된다.
- 주지사를 내각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주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으며, 군의회가 중요성을 가진다.
- 군의회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4년 임기의 의원 13~85명으로 구성된다.
- 군의회에서는 집행부격인 행정위원회의 위원 및 시장을 선출한다.

### ○ 방문결과

- 시청사 건물의 붉은 벽돌과 두 개의 사각 기둥탑이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시청정원(2만여평)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음.
- 모든 민원은 인터넷, FAX, 전화를 이용 신청 처리함으로써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민원관련 부정부패가 전혀 발생치 않아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오슬로 시청사 방문>

## <오슬로의 명소>

### ○ 비겔란 조각공원(Vigeland Sculpture Garden)

비겔란 조각공원은 오슬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인 300,000m<sup>2</sup> 규모의 프로그네르 공원안에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조각가 비겔란의 조각 작품 193점을 전시하고 있다.

※ 조각가 비겔란은 나무조각을 전공하였으며 프랑스 유학시절 로댕의 영향을 받았으며, 청동부조를 제작하여 상징적 자연주의의 대가가 되었다.

- 비겔란 조각공원은 오슬로시의 조각가 공모에서 비겔란이 당선되어 오슬로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비겔란이 1915년부터 건설한 조각공원이다.
- 작품내용은 분수대 중앙에 6명의 남자가 분수대를 받들고 있는 작품이 있고, 분수대 주변으로 청동으로 제작한 생명의 나무와 화강석 받침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 공원중앙에 위치한 높이17m의 화강암 조각탑인 모노리텐(Monolitten)은 이공원의 최고 걸작이다. 121명의 남녀 군상들이 인간의 온갖 형태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비겔란이 석고모델을 만들어 세명의 석공이 14년간에 걸쳐 조각한 작품이다.



☞ 모노리텐(Monolitten) : 높이 17m, 총중량 240톤  
조각내용 : 121명의 남녀 군상

- 공원내 조각공원 입구 교량위에는 남녀간의 사랑과 인생의 역경, 고뇌와 용기 등을 표현한 58개의 청동상이 이색적이다.



< 남녀간의 사랑 >



< 갈등과 화합 >



< 고 뇌 >



< 회 망 >

#### ○ 바이킹선박 박물관(Vikingshuset)

오늘로 피오르드에서 발견된 3척의 바이킹선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3척중 가장 크고 우아한 오세베르그호는 9세기초에 건조된 것으로, 35명의 노젓는 사람과 돛을 이용해 항해하였다.

50년정도 사용된 후, 오사여왕의 관으로 매장되어 배의 임무를 마쳤다.

역시 9세기경에 만들어진 고크스타호는 32명의 노젓는 사람과 돛으로 항해한 전형적인 바이킹선이다.

마지막으로 투네(Tune)호는 배 밑바닥을 제외한 다른부분은 부패된채 발견 되었는데,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의 이름은 발견된 지명을 따서 붙여졌다.



< 바이킹 박물관 전경 >



< 오세베르그호 >



< 튜네호 >

## 북유럽사례 및 우리시 접목방안

### ■ 자연환경

-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적도와 가까워 수 만년 동안 빙하에 덮여있던 지역으로 기후의 변화가 심하다, 특히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있으며, 겨울에는 너무 일찍 해가 지는 현상으로 햇볕이 모자라며,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낮다, 기온이 낮고 일광이 부족함에 따라 수목은 속성으로 자라며 높고 곧게 자라 방대한 대지에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이 있다.
- 호수가 많고 철광석과 목재(펄프)가 많이 생산되므로 일찍이 운송수단인 해상 교통 분야 조선업이 발달되었으며, 특히 스웨덴은 녹색지향국가로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은 없으며, 물동량의 50%이상을 철도(전철)를 이용하고 있다.

⇒ 북유럽의 자연환경 특성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자연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도시의 발전과 산업 발달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특히 공해유발 없는 산업과 철도 이용은 산유국이 아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우리시도 공해유발 없는 산업 적극 유치 검토)

### ■ 도시분야

- 러시아 및 북유럽의 헬싱키, 오슬로 등 도시에는 지역난방 및 상하수도, 전기공급 등을 지하공동구등을 이용 지하화 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하천역시 오염된 곳을 찾아 볼수 없었다.
- ⇒ 우리시도 이제부터라도 도시개발시에는 간선 전기시설 등을 지하화하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로 하천오염 방지가 필요하다.

○ 신호등은 지주등을 이용하여 일자형으로 운전자 위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 우리의 경우 신호등이 기억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랐으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공중화장실을 도로변에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었으며, 화장실관리는 유료화(동전투입) 하여 사용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 우리시도 시범적으로 실시 검토

## ■ 문화분야

○ 각종 문화재관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옛것을 소중히 여기며 애착을 갖고 있었고, 모스크바의 박물관에는 전시실마다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 우리시도 문화재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공원·공공시설물관리 등 단순 노동분야에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적극 검토 필요

## ■ 사회복지분야

○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 교육, 의료 노후문제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짐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소득에 대한 축적을 통하여 교육, 노후문제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할 부담이 없어 연금과 세금을 제외한 소득은 자신들의 가치있는 삶에 투자하고 있었다.

⇒ 우리도 선진국의 모형을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복지모형 개발이 필요함.

### Ⅲ. 연수성과

-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글로벌시대로서, 제한된 지역에서 외부와의 교류없이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보다 정치·경제, 문화·복지 등 다방면에서 앞선 북유럽의 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사회복지제도,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관리 등 보다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연수에 임 하였다.
- 그러나 한정된 짧은 일정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고 심도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북유럽 선진국 사례조사와, 복지시설 방문, 도시·문화, 사회복지 등 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향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북유럽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자연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도시의 발전과 산업발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호수가 많고, 철광석과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목재(펄프)생산과 해상 교통분야 조선업이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 북유럽국가의 도시가 고대도시의 기반시설과 현세대의 신시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먼 세대를 내다본 완벽한 계획과 시설,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있었으며,  
보존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관광 자원화 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이 매우 깨끗하고 도심 곳곳을 공원화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지선진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제도와 정책이 발전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었으며 항상 삶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호는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변하였다는 그들의 말처럼 의료보험, 무료교육, 실업자구제, 노후생활보장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회보장제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 북유럽국가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것으로 그 나라의 사회여건과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느꼈고,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행정은 역사와 배경이 달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체로 의회는 광역,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의 시장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보다 간접선출을 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러시아는 선입견 때문인지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하였고, 공항시설이 매우 낙후 하였으며, 아직까지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기초과학이 최고수준이고, 광활한 국토, 수많은 부존자원, 문화유적을 잘 관리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미래상을 엿 볼수 있었다.
- 잔잔한 시벨리우스 음악이 국토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6만여 호수들 사이로 침엽수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삼림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는 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웅장한 건축과 디자인은 매우 돋보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고 국가 청렴도 지수는 세계 제1위로서 부패없는 깨끗한 이미지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북유럽에서 넓은 영토의 스웨덴은 경제력과 사회복지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부유함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은 차별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인 스웨덴의 Kista Scienc Park 성공요인을 분석해 볼 때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 빙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피요르드와 일찍이 세계해상을 뒤흔든 바이킹의나라, 노르웨이는 어느 곳을 방문하여도 호수, 폭포 등 자연 속에 둘러 싸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북유럽 제1의 문화 도시임을 자부하는 오슬로와 여러종류의 레스토랑, 박물관, 다양한 축제등 활기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북유럽국가에서 우리 제품 자동차가 길거리를 누비고 , 삼성·LG 등의 대형광고 간판이 눈에 띄어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으며, 아울러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항공, 철도, 선박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바쁜 일정으로 많은 나라를 접하다 보니 깊이가 없는 연수가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선진 북유럽 국민들의 수준높은 질서의식과 친절함, 자연사랑의 소중함에 우리자신들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